

# ARCHITECTURE TRAVEL



정병협 나은 건축사사무소  
by Chung, Byung-hyup, KIRA

·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지편찬/TF 위원

##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下)

Dreaming that my life is free

1월 18일~1월 19일, 뭄바이(Mumbai)

버스 운전사가 세 번이나 차를 기다서다 하며 말썽을 부린다. 나래가 India lonely planet을 보고 운전사에게 목적지까지 계속 가라고 우겨서 겨우 우리가 바라는 곳에 내릴 수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8시경에 도착해야 하는데 3시간가량 더 걸렸다. 인도 제 1의 경제 도시라 그런지 뭄바이(Mumbai)는 교통량이 많고 시끄러운 경적소리가 정신을 빼 놓는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오는데 온통 자동차 물결이다. 가까스로 White pearl hotel에 짐을 풀어 놓는다. 잠시 밖으로 나가 호텔 앞에 있는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돌아온다. 우리 방이 소음이 심해 나가보니 세탁실 옆이었다. 프론트에 가서 체크인 해달라고 하니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알아보는지 까칠하게 굴어서 언성을 높였으나 방을 옮겼다. 점심은 델리도바에서 하기로 하고 택시를 탔다. 사람이 붐벼 금방 맛있는 집임을 알 수 있었다. 프라운도 시키고 커리도 시켜 맛있게 먹었다. prawn은 실컷 먹는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건다가 집사람에게 이끌려 베네통을 잠깐 들렀는데 세일이라고 사람이 많이 붐벼으나 살 것도 없다. 대낮부터 쇼핑하는 여유를 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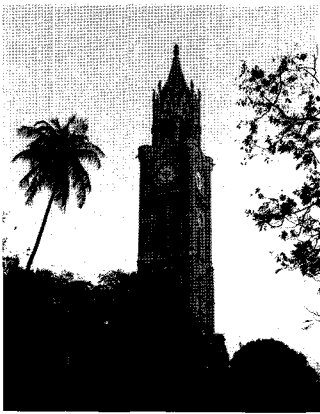
릭사를 타고 성 토마스 성당에 내려 관광을 시작한다. 나래와 집사람은 코코넛을 사서 마신다. 인도 와서 처음 마셔본다. 성 토마스 성당은 밖에서 볼 때는 허술하고 보잘 것 없이 보였는데 내부에 들어서니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특히 천정의 아치구조가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계속 걸어서 뭄바이 대학으로 갔는데 건너편에 운동장이 보인다. 땅덩어리 큰 나라답게 캠퍼스가 상당히 크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지은 법원도 감상한다. 뭄바이 대학교의 시계탑도 감상한다. 이 건물들은 모두 유럽풍의 고딕양식으로 지어져 있었다. 우리와는 달리 영국 식민지 시절의 건물도 보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덕분에 아름다운 고건축물의 멋을 감상할 수 있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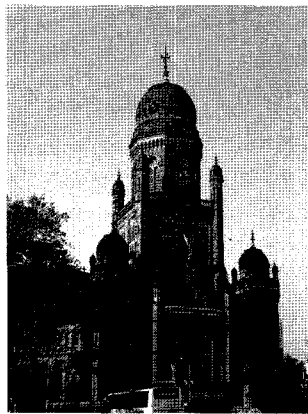
인디아게이트의 일출

저녁 후 어두워질 무렵 타지마할 호텔 야경을 감상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 혼잡하였다. 연인들이 많았고 호텔 주변 강가를 한바퀴 도는 영업용 백마차도 많았다. 강가에 비치는 반영과 함께 아름다운 타지호텔이 세계적 명성에 맞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 폭파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경비가 삼엄했지만 호텔 입구는 휘황찬란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Sea place hotel bar에서 밤늦게 까지 오붓하게 맥주잔 부딪치며 즐겁게 마셨다.

1월 19일



뭄바이대학교내의 시계탑



뭄바이 철도역사

혼자 일찍 기상하여 인디아 게이트 앞 해변으로 걸어가 붉게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한다. 갈매기가 수없이 몰려다니 해변은 더 아름다웠다.까만 갈매기가 아침 해의 용솨음을 축하하기라도 하듯 신나게 비행을 하고 있다. 한 어부가 그물 낚시를 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어느덧 날이 환하게 밝아온다. 호텔에 들렀다가 호텔 앞에 있는 제과점에서 빵으로 아침을 대신한다. 뭄바이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제과점은 여러 가지 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빵처럼 맛있었다. 출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서서 출입문도 예의를 갖추고 열어준다.

식사 후 택시를 전세 내어 뭄바이의 유명 관광지인 빨래터로 향한다. 이곳은 인도인의 신분 제도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곳이다. 천민은 이곳에서 태어나 숙식과 일을 하며 죽을 때까지 머문다고 한다. 뭄바이 시내의 모든 빨래거리는 여기서 처리된다고 한다. 종종 리어카에 커다란 부피의 빨래감을 싣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 애처로워 보이기도 한다. 이곳저곳 정신없이 사진 찍느라 또 이산가족이 되었다. 빨래터 안은 돈을 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부르는 것이 값이다. 반값으로 흥정하여 들어갔다.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여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다. 옷을 거의 다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젊은이건 노인이건 모두 쉬어서 군말 없이 묵묵히 일만 한다. 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집사람과 나래가 나를 한참 찾았는지 화난 표정이다. 두 사람을 달래고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간디 박물관을 찾아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지도를 제대로 볼 줄 몰라 주변 골목을 몇 바퀴 더 돈 후에야 들어갈 수가 있었다. 건물은 소규모의 아담한 규모였는데 패널과 디오라마 형식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간디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당신은 나를 묶어둘 수도, 고문할 수도, 심지어 죽일 수도 있지만, 결코 나의 정신을 가둬둘 수는 없다고 말했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정신의 위대함을 다시 발견한다.

박물관을 나와 다시 차를 타고 해변 공원으로 갔다. 부산의 해변처럼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날씨가 좋아 관광하기가 아주 좋았다. 매점에서 얼음 주스를 사서 나래가 맛있게 먹고 있어 나도 하나 더 사먹는다. 다시 택시를 몰고 뭄바이 철도역으로 간다. 식민지 시절에 지은

지 역사가 특이하다. 이어서 길거리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수업을 기른 주인장이 물건 파는 과묵한 표정이 인상깊었다. 저녁도 하고 맥주도 마실 겸 유명하다는 호프집에 갔는데 외국인들로 초만원이다. 기분 좋게 마시고 뭄바이의 밤을 걸어본다. 내일은 편안하게 머물며 휴양할 수 있는 고아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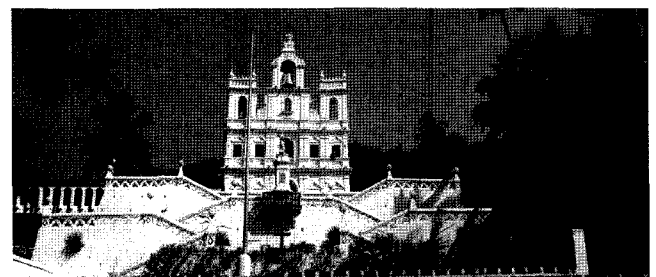
### 1월 20일~1월 24일, 고아 (GOA)

1월 20일 고아로 가는 새벽 열차 안에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하고 침낭 속으로 들어가 단잠을 또 잔다. 창밖에 산들이 많이 보인다. 기차를 탈 때 걱정스러운 것은 안내방송을 하지 않아서 목적지가 종착역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초간장 상태가 된다. 안내 표지판을 못 보면 엉락없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결국 종착역(마르가오역)까지 갔다. 다행히 목적지 고아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역 밖 광장은 햇볕이 뜨겁고 강렬하여 너무 그늘을 찾아야 했다. 리사꾼들이 담합하여 터무니없이 바가지요금을 부르는 통에 할 수없이 큰 길로 나가 지나는 리사를 불러 적당한 값에 고아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하였다. 리사꾼은 고아의 해변 중 하나인 콜바(Colva) 해변에서 내리라고 한다. 숙소까지 가려면 옷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옷돈을 주기로 하고 목적지인 가든코티지(Garden-Cottage)까지 힘겹게 숙소로 도착한다.

숙소는 단아한 단층 구조였는데 잔디와 갖가지 꽃나무들, 그리고 키 큰 야자수가 높이 솟아 있다. 나무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무 기척이 없다. 집을 비워놓고 나가도 아무 탈이 없는 모양이다. 옆집에 물어보니 잠깐 저쪽집으로 갔다고 말하며 주인이 미스터 올란도라고 한다. 무작정 미스터 올란도를 찾아 숲속길을 나서야 했다. 한참 만에 그를 찾아 가운데 방을 얻을 수 있었다. 시골풍의 전원적인 방에서 흰셔츠를



고아 해변의 야자수가 있는 노을풍경



뻘집의 시립공원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 성당

빨아 뒷마당 빨래줄에 널어 놓고 보니 시골집에 온 듯 마음이 개운하다. 공기가 맑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자연이라서 그런지 피로가 쉽게 풀어진다. 옷을 갈아입고 좁은 길을 걸어 해변으로 산책을 나간다.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즐기고 있었는데 새로운 놀이문화가 눈에 들어온다. 보트에 줄을 매달고 속도를 내면 뜨는 패러글라이딩이 날고 있었는데 하늘 높이 공중에서 재주를 부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간단이 서늘하다. 대단한 담력을 갖고 스틸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구경을 하다가 해변가에 있는 부페랑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는다. 그리고는 선 베드를 하나 빌려 일광욕을 하면서 인도 최고의 휴양지 고아 해변에서 편하게 누워 일몰을 본다. 집사람과 딸내미를 모델로 아름다운 석양 노을을 이리저리 담아보기도 한다. 모델도 힘들고 좋은 앵글을 잡기도 어렵다. 어두워 질 무렵 수박, 오렌지, 바나나 등 과일을 사들고 숙소로 돌아온다. 나무문을 열고 들어와 창 밖 폴벌레 소리를 들으며 과일을 나눠 먹는다. 모기장이 쳐진 침대에서 다소 현혈도 하면서 새벽잠을 설치지만 그래도 잘 잤다.

### 1월 21일

새소리, 닭울음소리, 종소리 등 온갖 자연의 소리가 어울린 아침 풍경. 고아에서의 이틀째 아침을 맞는다. 숙소 주변을 산책한다. 야자수 나무 사잇길과 이슬이 맺혀있는 좁은 풀길을 걸으니 상쾌하다. 대문 밖에는 새끼돼지가 우리 안에서 꿀꿀대며 놀고 있다. 바나나 등 먹다 남은 과일을 던져주니 신나게 먹는다.

10시경 아침을 먹고 팔로렘으로 갈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흘러 베나올림으로 릭샤를 타고 갔다. 스쿠터를 타고 가자는 나라의 제안은 면허증이 없어 물거품이 되었다. 베나올림 비치는 풀바 비치보다 한적하고 조용하여 좋았다. 야자수도 멋지게 늘어서 있다. 일단 선베드를 렌탈하고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축인다. 누워서 해변을 보니 그냥 편하다. 파도 타기를 하면서 놀기도 한다. 선베드 아래 전공들이 누워 낮잠을 잔다. 소를 모는 견우노인도 해변을 장식한다. 견공, 우공들이 함께하는 백사장은 인도가 아니라면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일 것이다. 풀바까지 걷기로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1시간 정도 걸었다. 해변을 걸어오는데 어떤 남자가 나래를 보더니 나에게 딸이냐고 묻더니 웃으며 beautiful ~ beautiful한다. 예쁘다는 말에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팔볼출 아빠다.

### 1월 22일

전날 예약한 전세 택시가 9시 30분에 왔다. 우리나라의 다마스보다 조금 작은 차였다. 10시 30분에 팔로렘 비치에 도착, 여기저기 자리를 고르다가 cuba restaurant에서 아침 겸 점심식사를 한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지만 그런대로 풍성하게 먹은 식사다. 고아 해변 중 가장 아름답다는 명성이 있는 해변에서 오늘도 신나게 파도타기를 즐겨 본다. 조금은 한가한 해변이지만 많은 볼거리가 있다. 이방인의 피르소가 태

양 때문에 살인했다는 말을 이해할 거 같다고 집사람이 말할 정도로 햇볕이 따갑다. 수영복 차림으로도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우리는 선베드를 얻어 누워 책고 보고 낮잠을 자기도 한다. 이곳저곳 사진을 찍기 위해 해변을 한 바퀴 돈다. 해변 끝까지 가보니 밀림 같은 멋진 곳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려니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의 젊은이들이 나와 사나운 표정으로 방해해 해 그냥 이곳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는 바위언덕을 올라갔더니 좁은 숙박 시설이 틈틈이 들어서 있었는데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다시 내려와 조망이 멋진 레스토랑에서 양해를 얻어 사진을 촬영해 보기도 한다.

고아 해변 어느 곳이든 걷거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운전사와 돌아가기로 약속한 시간이 20시여서 저녁을 코즈눅에서 하기로 하고 사진기를 들고 나왔는데 해변이 어두워지니 어딘지 찾기가 힘들다. 인도의 해변은 밤이 되면 원시림의 숲속처럼 어둡다. 바로 앞의 물체도 희미하게 보인다. 그 어둠 속에서 코즈눅이란 레스토랑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다행히 낮에 보트를 타라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노란 셔츠의 사나이가 집사람을 알아보고 "your friend, over there"라고 말해주어서 집사람이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가까스로 상봉을 하였다. 눈썰미 있는 인도남자 덕분에 집사람을 만나 코즈눅 레스토랑에서 새우와 킹피쉬 등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나니 그 인도남자가 새삼 고맙고 그에게 준 팁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 기다리던 있던 택시 운전사의 차를 타고 21시 30분에 가든코티지로 돌아온다.

### 1월 23일

숙소 주변을 산책하다 보니 고아 풀바 해변 인근에 숙박시설이 많이 건설되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이채로운 풍경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크레인적인 도르레를 골조위에 설치해 놓고 인부 둘이서 줄을 끌고 끄끄거리며 앞으로 나가면서 무거운 건축자재를 상부 층으로 운반하는데 더운 날씨에 무척이나 고생을 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밝은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기계가 할 일을 아직도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니 원시적이지만 노동이 신성하다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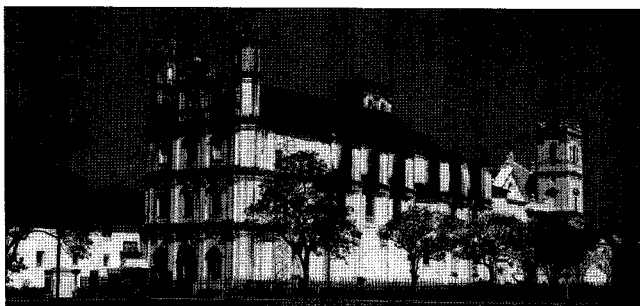
베즈 식당에서 치즈 토마토 샌드위치 등으로 아침을 먹었는데 야채만으로도 조리를 해서인지 -심지어 계란도 사용하지 않는다. -맛이 맛있게. 그러나 처음 가 본 베즈 식당이었으므로 경험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오늘은 포르투갈령 인도 식민지의 수도 (1510~1843)였던 고도 올드고아(old goa)를 구경하고 뻬짐(Panjim)으로 숙소를 옮기는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어제 택시 기사를 다시 콜(call)해서, 짐을 싣고 올드고아(old goa)로 출발한다. 가는 길은 숲이 많고 조금 작은 강이 흐르고 있어 경치가 수려해 잠시도 눈길을 놓지 못한다. 올드고아에 도착하니 뻬짐에 숨이 찰 정도로 기온이 높다. 아마도 섭씨 40도는 될 성 싶다. 그나마 하늘이 맑고 공기가 좋아 다행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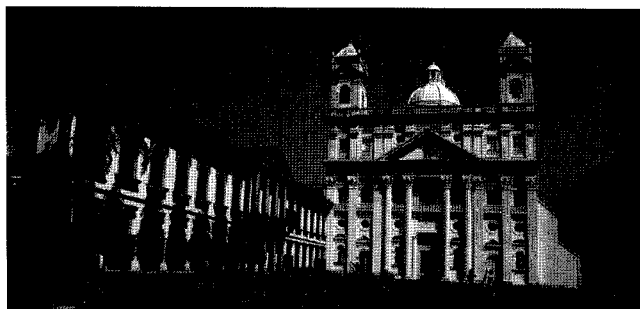
1562~1652년에 건축된 성 캐더린 성당을 비롯하여 흰벽색의 성당, 붉은 벽돌의 성당 등 고 건축들이 대부분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었다. 이곳 성당들은 역사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봄지저스성당(Basilica of Bom Jesus)은 1946년 교황청으로부터 인도 최초로 대성당이라는 칭호를 받은 곳인데 400년이 넘어서도 썩지 않은 시신이 안치돼있어 유명한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들어서면 섬뜩한 느낌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웅장하고 정교한 아름다운 장식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 아우구스티네 타워(St. Augustine Tower)는 대부분 멸실되어 기초와 타워 등 일부만 남아있었지만 규모가 상당히 커 보인다. 성 카제탄 성당(Church of St. Cajetan)과 수도원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반구형 돔 등 장식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이어 뻬짐(Panjim)으로 다시 이동한다.

뻬짐(Panjim)시내에 도착해 운전사가 제일 먼저 내려준 곳은 시립공원 옆에 있는 1954년에 건설된 동정녀 마리아 성당(Our Lady Church)이다. 흰색 건물이라 한눈에 속 들어 온다. 시내 중심가에 있어 사진만 남기고 숙소를 잡으러 골목길 안으로 들어간다. 인도100배 즐기기에 나와 있는 Comport Guest House를 찾아 짐을 푼다. 이 골목길은 대부분 중세 유럽풍의 집들로 차분한 분위기이다.

대충 씻고 시가지 구경을 하기 위해 걸어 나온다 무단 횡단도 하며 보도를 따라 조금 가니 항구가 나온다. 선착장인 듯한 곳에서 인도만의 진풍경을 보았다. 정원보다 2배정도는 더 태우고 떠나는데 내리고 타는 부분을 그대로 열어 놓은 채로 뒷부분에는 오토바이 2대까지 아슬아슬하게 태우고 간다. 물에 빠질 듯 아찔한 풍경이다. 자전거를 타는 타려다가 못 타고 떠나는 배를 쳐다보고 있다. 나래와 둘이서 동시에 셔터를 누르고 제목을 붙여 본다. - '떠난 자와 떠나지 못한 자'. 돌아서 찾길로 나오니 꼭 찬 만원 버스에 앞문과 뒷문 모두 차장이 있



올드고아의 성캐더린성당



올드고아의 성당

다. 바닷가의 보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나와 있었고 산기슭에 자리 잡은 초호화 관광호텔과 유람선도 보인다. 사진을 찍으며 인도를 느끼며 다니다 보니 까만 갈매기들이 하늘을 점령하며 수놓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도 인상적이었다. 7시 30분경 숙소 근처 호텔 베니프 식당 2층으로 가려는데 음침한 조명이 걸려 망설이고 있는데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 올라갔다. 100배 즐기기에 소개된 곳답게 모양이나 맛이 인도답지 않게 정갈했다. 따뜻한 하드를, 갈릭소스 새우 등 다양한 메뉴를 시키고 맥주와 함께 오붓한 식사를 한다. 즐거운 밤이었다.

### 1월 24일, 고아에서의 마지막 날

가장 변화하고 상업적인 해변인 칼랑굿(Calangute)으로 가기위해 버스 터미널로 갔다. 아침도 안 먹고 숙소를 나섰더니 허기가 진다. 스탠드에서 파는 samosa와 인도 빵, 짜이 한 잔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운다. 버스 앞에는 아무 안내판도 붙여져 있지 않아 어리둥절했는데 버스 차장들이 목적지를 큰 소리로 외친다. "칼랑굿"하고 물으니깐 손으로 타라는 시늉을 한다. 일반버스인데도 맨앞자리는 ladies only 숙녀 전용이고 그 다음칸은 senior, citizen이라 써있다. 10시30분 출발했는데 차장이 직접 차비를 받으며 다닌다. IT강국이라는 인도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다. 몇 번 정차하더니 사람들을 태우고 썩 달려 11시30분 칼랑굿 비치에 도착하였다. 관광객들로 붐비고 혼잡한 곳에서 다시 바가(Baga)비치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12시경 내렸다.

이곳은 남쪽보다도 훨씬 붐비고 소란스러웠다. 해변 곳곳에서는 소음을 내며 보트를 타고 다닌다. Bistro Bar & Restrant에서 Sun bed를 빌려 선택했다. 이젠 몸도 갈색으로 변할 만큼 많이 탔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버스 타는 곳으로 오는데 버스가 떠난다. 나래가 뛰어가서 차를 세운다. 겨우 차를 탔는데도 꽤나 즐거웠다. 버스는 조금 가다가 손을 드는 사람이 있으니 또 멈춰 선다. 추월하면서는 경적을 울리지 않고 서로 넘나들면서도, 직진할 때에는 크게 경적을 울려댄다. 참으로 재미있는 나라다. 6시 5분에 버스가 출발 했는데 6시45분에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석류와 오렌지 등을 사들고 오는 길에 인도에서 유명한 빵집이라는 Daily Bread에 들러 케익 등 맛있는 빵들을 사들고 나온다.

### 1월 25일~1월 26일, 뱅갈로우

뱅갈로우로 가는 날이다. 시간을 벌기 위해 비행기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택하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짐을 챙긴다. 이곳 게스트하우스들은 다른 곳하고는 달리 오전 8시30분에 check out를 하기 때문이다. 뻬짐에서 30km 떨어져있는 Vasco Da Gama 공항으로 가기위해 시내로 나와 택시를 기다린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택시가 나타났다. 요금을 터무니없이 불러 처음부터 흥정을 한다. 나중에 보니 자가용이다. 대낮에 시내에서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운전사가 힌두송을 틀어 놓아서 유쾌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오른 쪽 편에 바다를 끼고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가는 길은 오래 머물렀던 고아를 떠나는 기분을 환기시킨다.

9시35분에 공항에 도착한다. 공항 레스토랑에서 갈릭브레드와 샌드위치와 커피로 아침을 먹고 10시30분 공항 대기실로 나온다. 14시분 뱅갈로우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까지 3시간 30분 정도 남았다. 쇼핑도 하고 뱅갈로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30대 후반 한국인 남자와 이야기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어느덧 비행기는 이륙을 한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깨끗한 실내분위이다. 조그만 창안으로 눈부시게 햇살이 들어온다.

3시에 뱅갈로우 공항에 도착한다. 택시를 타고 MG Road로 향한다. 이곳 택시 운전사는 제복을 입고 내려서 짐도 실어주는 서비스도 해준다. 차안이 엄청 깨끗하고 청결했다. 에어컨 바람도 솔솔 나온다. 인도 와서 처음으로 에어컨 나오는 택시를 탄 것이다. 도심에 있는 엠파이어 호텔에 도착하여 투숙을 한다. 슈퍼더리스 룸으로 얻었다. 숙박비는 비싸지만 방은 근사하다. 이어 저녁을 먹으러 한국음식점인 '수라상'으로 갔는데 소주 1병에 600루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5,000원 정도이니 살인적 물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 두병에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 나물, 빈대떡, 비빔밥, 된장찌개 등 한 달 여 만에 한국 음식을 실컷 시켜먹었다. 수라상을 운영하는 호탕한 여사장은 음식을 듬뿍듬뿍 갖다 주어 우리를 더욱 기분 좋게 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행복한 밤이었다.

## 1월 26일

빈둥빈둥 여유 만만하게 시간을 즐겼다. 펄펄 쏟아지는 따끈한 물에 아침 샤워. 정말 오래간만이다. 9시경 룸서비스로 콘티넨탈식 아침을 주문했더니 객실로 배달해 준다. 토스트, 오믈렛, 짜이, 커피, 그리고 워터메론 주스로 아침식사를 한다. 집사람은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남편이 가져다 주는 아침식사를 인도에서 할 줄 몰랐다고 좋아한다.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으니 편안함과 여유를 만끽하며 오후 2시까지 그냥 폭 쉬다가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간다. 자유여행의 특권이다. 거리는 자동차와 사람들로 많이 붐볐다.

인도라고 하기엔 너무 현대적인 뱅갈로우는 마치 서울 명동거리를 걷는 듯하다. 가려던 일식집도, 중국식당도 모두 CLOSED다. 한참을 걸어나가니 차이나 레스토랑이 보인다.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 이곳은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검사를 한다. 4층 Aromas china restaurant에서 볶음면, 볶음밥, 오리고기 등을 시켰다. 잔잔한 음악이 실내에 흘러나온다. 파스한 자스민 차를 4잔이나 마셨다. 간이 센 편이었지만 해물이 많아 맛있었다. 간간히 우리나라 노래도 나온다.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다. 다시 거리로 나와 백화점 구경을 한다. 집사람과 나래가 신나게 쇼핑을 한다. 무슬람교도 여인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해서 모델이 되어 주기도 했다. 기다리는 동안 백화점 밖 커피숍에서 이리저리 주변을 돌아보며 커피 한 잔을 먹는다. 날이



뱅갈로우 MG 로드에 있는 백화점 실내 전경



뱅갈로우 MG 로드에 있는 상가 전경

어두워졌다. 다시 호텔로 가서 짐을 찾아 에르나쿨람(코친)으로 향하기 위해 뱅갈로우 기차역으로 간다. 밤 10시 차인데 정확하게 열차가 도착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확하게 도착한 열차가 인도답지 못한 듯했고 현대 문명과 접목된 뱅갈로우가 인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 1월 27일, 깨랄라주의 코친-에르나쿨람

열차에서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1월 27일 아침이다. 이번에 탄 열차 좌석은 출입문 가까이에 있어 고생을 조금 더 했다. 오가는 사람들의 문 여는 소음과 기적으로 잠자리가 불편했다. 일찌감치 침상에서 일어나 인도 사람들과 마주 앉아 있다. 무사히 에르나쿨람(Ernaculam)에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침 대응으로 속이 빨간 바나나를 먹는다. 어느 역인지 한참을 서있다. 처음에 물어봤을 땐 10시에 도착한다고 했었는데 딜레이 되는 모양이다. 고아에서 한 정거장을 지나친 후로 기차를 타면 긴장이 되고 이정표에 신경이 곤두서있다. 12시경 인도의 최남단 에르나쿨람(Ernaculam)역에 무사히 도착한다. 언제부터인가 이동시에는 집사람 것까지 배낭을 앞뒤로 메고 다닌다. 선착장으로 가서 15분을 배를 타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코친항(Kochi)에서 내렸다. (코치는 로마시대부터 향신료 무역 중계지로 이름을 날린 현존하는 인도 최고의 무역항이자 깨랄라주의 주요관광지이다.) 다시 리샤를 타고 네루 어린이공원 입구에서 내린다. 유럽풍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파스텔 톤의 낮은 건물들이 마음을 편하게 한다. 우리가 얻은 호텔은 남인도 풍으로 2층이다. 천장에 팬이 2개나 달려있고 침대가 3개 놓여있다. 길쭉한 방인데 길가 쪽으로 발코니가 있어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하기도 좋다. 발코니로 나갔더니 옆방의 여성 관광객이 쳐다보며 미소를 짓는다. 나도 미소로 화답한다. 마침 담배가 떨어져 1층에 있는 슈퍼에 갔더니 우리 담배 종류는 거의 다 있다. 다른 곳보다도 가격이 조금 싸서 몇 갑 샀다. 짐을 정리하고 쉬다가 3시경 카페에 들러 식사를 하고 맥주를 마셨는데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맥주를 주전자 모양 도자기 단지에 담아온다. 재밌게도 맥주잔이 연두색 머그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모양은 영 아니었지만- 미지근한 보리차같은 맥주로 갈증을 달래본다. 이런 맥주는 인도가 아니면 맛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달게 마신다. 기다리다가 더 허기가 지고 이내심마저 필요로 했던 추가로 주문한 볶음밥은 30분 이상 기다린 다음에야 먹을 수 있었다. 인도의 실상과 허상을 본다. 허기를 해결하고 해변을 거닐어 본다. 잡은 생선을 길거리에 놓고 파는데 파리들이 많이 붙어있다. 지저분한 생선 구경을 하고 계속 걸어가니 중국식 어망으로 투망을 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이 보인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던진다. 내가 사진을 찍자 다가오며 손을 내민다. 돈을 주면 모델을 제대로 해주겠다는 의미다.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나무를 열기설기 쇠줄로 엮어 바다위에 고기 잡는 도구(어망)를 만들어 곳곳에 설치해 놓은 것이 아라비아해의 바닷가를 이색적인 풍경으로 만든다. 규모도 꽤 커서 여기에 걸터앉아 몸을 잡으며 사진도 찍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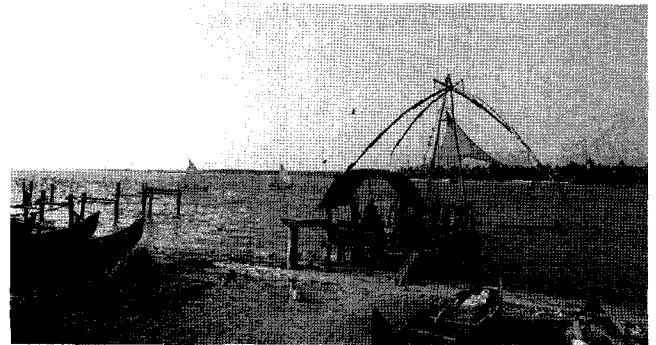
어느덧 해가 넘어간다. 기러기도 아니고 까마귀 같은 새가 무리를 지어 마지막 먹이를 찾아 날아다닌다. 석양은 어디서 봐도 아름답지만 바닷가의 붉은 노을은 더 멋지다. 어두워지며 노을이 깔리는 바닷가가 낭만적이어서 산책을 더 했다. 깜깜해진 해변을 나서는데 부두에서 배가 떠나려는 풍경이 보이는데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줄지어 오르고 있다. 뿅뿅이 싹고는 배는 떠나간다.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 어딜 가나 만원이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도 삶의 현장은 바쁘게 돌아간다. 돌아서서 보니 오래된 고목들이 긴 터널을 만들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 모조리 베어져 나가는 나무들을 보면 인도의 나무들은 참으로 행복하게 태



코치의 거리 풍경

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망고와 오렌지, 파인애플을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온다. 모기에게 현혈하며 산 망고는 달고 맛있어서 자꾸만 먹고 싶어진다. 베리베리 달리셔시다.

### 1월 28일~1월 29일, 케랄라주-알라뿌자(Alappuzha)와 콜람(Kollam)



코치해변의 중국식 어망 풍경

1월28일 새벽, 모기가 극성을 부려 모두 일찍 일어났다. 샤워 후 아침을 먹고 8시에 check out, 하우스보트를 타러 알라뿌(현지발음)(Alappuzha)로 간다.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릭샤를 타고 버스스탠드에 내려 30분 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 버스를 타고 1시간15분을 달려 10시경 알라뿌에 도착한다. 거리는 어수선하고 사람들과 차들로 붐빈다. 햇빛은 강렬하고 덥다. 조금 걸어 올라가니 하우스보트 여행사가 있다. 여기서도 흥정을 하는데 4500루피 달라는 것을 나래가 4000루피로 흥정한다. 다시 여행사에서 제공해주 릭샤를 타고 10시 30분 하우스보트 선착장으로 간다. 이제 다음날 9시30분까지 이 배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는 'Narae호'라고 이름 지었다. 방 2개에 욕실이 각각 있고 보트 앞부분에는 조망할 수 있는 거실에 테이블과 안락의자와 소파와 식탁까지 있다. 뱃머리에서 선장 아저씨가 키를 돌려자 배는 미끄러지듯이 나아간다. 바로 옆에는 전날 출발한 하우스보트가 돌아오는데 배에 탄 관광객이 연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어준다. 우리도 멋진 여행이 될 것이라ں 예감이 든다.

연꽃 꽃길위를 가로지르며 우리의 보트 Narae호는 유유히 흘러간다. 양쪽 옆에는 아저수가 즐비하고 강 위에는 부레 옥잠같은 수중식물들로 덮여있다. 유유히 흐르는 강처럼 떠가는 보트위에서 모두들 즐거워하며 흡족해 한다. 집사람은 생애 최고의 휴가라고 말한다. 선장의 경적소리는 아이들 장난감처럼 뿅뿅 소리가 난다. 흰 실로 만든 줄을 당기면 종소리가 난다. 선원들끼리의 의사소통인가 보다. 조금 가다가 배가 멈춰 선다. 오늘은 선장아저씨 지인의 장례가 있는 날이란다. 잠시 후 다시 배가 움직이고 우리는 즐겁게 떠간다. 가다보니 길가에 작은 상점이 있고 prawn을 파는 가게도 있다. 잠시 상점 앞에 정박한다. 선장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한다. 손바닥만한 새우가 1kg에 600루피라고 한다. 결국 사지 못하고 떠났다. 나래가 사은 꽃모양 과자가 파삭 파삭 먹을 만 했다. 조금 더 가니 강 위 보트에서 새우를 판다. 1kg조

금 넘는다. 800루피를 줬는데 그야말로 왕새우다. 오늘저녁 새우구이가 무척 기대된다.

1시에 점심이다. 커리와 짜파티 튀긴 것이 느껴서 가져온 고추장에 비벼 먹는다. 2시30분까지 정박하고 다시 떠난다. 신발트의 모형 같은 항해다. 눈치 채지 못하게 부드럽게 흐르는 배, 우리의 삶도 강물 흐르듯 평화롭기를... 검은 오리와 물뱀도 보고 백로들도 노닐고 있다. 현대와 완전 분리되어 우리만의 시간 속에 놓인 것 같다. 3시 30분 경 짜이와 노란 바나나튀김을 내놓는다. 하얀 백로들의 자유스런 비행과 울음소리를 들으며 녹록한 바람을 맞으며 오후의 티타임을 즐겼다. 백로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다. 지상 낙원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망원렌즈가 없어 아쉬웠지만 그나마 표준렌즈로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으니 좋았다.

강바람이 온기를 머금고 피부에 달라붙지만 이런 끈끈함도 우리만의 은밀한 항해에선 액세서리다. 7m수심의 강 너머엔 뚝보다 낮은 논이 있다. 이 강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인공 댐을 만들어 관광 수입도 올리고 양식거리도 해결하는 셈이다. 대단한 인도인이다. 맘씨 좋게 생긴 선장 아저씨와 요리사 아저씨 덕분에 행복한 항해를 하고 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강변 독방길 아줌마들의 나들이 행렬, 염소가 풀을 뜯고, 날씬한 자태로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야자수 나무들은 룡다리의 인도 남자들 같다.

여행 후의 나의 삶은 다시 치열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장소를 떠올리면 내 삶의 배터리가 될 것이다. 오후 4시 강물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다. 찰싹찰싹 뱃전에 부딪치는 강물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삶을 너의 색깔과 향기로 살아가라고 어떤 일이 너에게 닥치더라도 웃으며 받아들이라고 인도의 강물이 나를 가르친다.

prawn을 어떻게 요리할까요? 묻는 요리사 아저씨와 나래가 한참을 이야기한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 good이다. 있는 그대로 원시를 즐기는 기본이다. 더 어린아이처럼 들뜬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지금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4시20분 선장은 약간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끈다. 한 눈에 정글 같은 양쪽 전경이 다 들어온다. 4시40분 더 좁은 길로 들어간다. 푸릇푸릇한 벼가 가까이 서 있다. 처음엔 정글 탐험하는 분위기였으나 갈수록 인도인들의 생활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돌에 빨래감을 두드리며 빨래하는 여인, 목욕하는 사람들, 물고기를 씻어 냄비에 담는 아낙네, 설거지 하는 여인, 집 앞에 흐드러지게 핀 작약 같은 꽃, 들뜬에 노니는 닭들의 무리, 빨래줄에 널린 소박한 옷들, 그리고 강물에 비친 풍경과 모습들은 평화롭기만 하다. 꼬불꼬불 야자수, 천동 번개에 쭈인 야자수도 보인다.

5시 40분 정박한다. 해지는 들녘 쪽에 세워져 노을의 반영은 찍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저녁을 맞는다. 백주와 왕새우구이, 고추장에 비빈 볶음밥을 맛있게 먹는다. 야자수 나무에 원숭이처럼 올라가며 놀기도 하고 강둑을 오가며 사진도 찍는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침실에 모기향과 선풍기를 틀어 놓고 곤히 잠이 든다.

## 1월 29일

배 안에서 하루가 밝아 온다. 새 소리가 경쾌하다. 닭소리 그 밖의 여러 동물의 소리, 수탉도 길게 온다. 어김없이 까마귀의 울음이 후렴처럼 곁들여진다. 7시30분 짜이로 오늘 아침을 연다. 8시 잼과 버터를 바른 토스트와 어울리지 않는 인도라면볶음, 파인에플로 아침을 먹고 수로를 따라 처음에 승선했던 곳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 곳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은 참 빠르다. 금방 청년이었다가 모르는 사이 어느새 노년의 황혼길로 접어들게 되는 우리네 인생처럼... 선장님과 요리사 아저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일 간의 특별한 항해를 마치고 다시 육지로 돌아왔다.

10시30분 리사를 타고 시내에 있는 KTC guest house에서 휴식을 취한다. 집사람은 배멀미를 해서 많이 지쳐 있어서 쉬라고 하고 홀로 카메라를 들고 걸어서 상점이 많은 중심가로 나왔는데 햇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다. 남자들은 양산을 쓰고 다니는 모습도 보인다. 버스를 보니 만원이다. 부녀자들이 많이 타고 있다. 예쁜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많다. 자식 사랑은 세계공통이다. 상점 앞에서도 서있는데 직원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며 포즈를 취해준다. 찍은 화면을 보여주니 해맑게 웃으며 좋아한다. 집사람 말처럼 까무잡잡한 피부에 왕방울만한 눈동자 때문인지 인도남자들의 미소는 유난히 해맑다는 생각이 든다. 배송 운반하는 리어가 끈은 귀한 바나나를 리어가 바퀴 받침대로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다시 돌아가 '인도 100배 즐기기'에 나와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한다. 찾기는 힘들었는데 푸른색으로 인테리어를 해서인지 시원하고 깨끗해서 좋았다. 우리 테이블 옆자리에는 노인 부부가 앉았는데 오랫동안 두 분이서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며 재미있게 답소한다. 참 보기 좋았다. 우리도 저 부부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여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제 다시 뱅갈로우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한다. 저녁 7시20분에 기차가 도착하였는데 인도에서 타는 마지막 기차다.

## 1월 30일~1월31일, 인도여행의 종착역 뱅갈로우

아침 8시 뱅갈로우역 도착. 배낭을 앞뒤로 메고 역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다. 흥정하는 리사꾼들이 따라 다녔지만 1루피를 주고 행선지를 말하면 가격을 찍은 종이를 주는 행렬에 끼여 긴 줄을 서서 기다리다 택시를 잡아 탔다. 아침 시간이라 차들로 북비는 뱅갈로우 시내를 요리조리 잘도 달린다. 바로 옆 차의 뒷좌석의 젊은 남자가 신문을 읽고 가고 있다. 인도에서는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가용 기사를 채용한다고 나라가 말한다. 언제부터인가 인도도 돈이면 다 통하는 나라가 되었나 보다. 1시간여를 달려 10시경 호텔에 도착했다. 일전에 갔던 한국음식점 '수라상'이 있는 호텔이었다. 우리가 투숙한 방은 옛날 공항 부근이었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모던하여 전

혀 인도같지 않았다. 물 걱정 없이 샤워를 하고 피자가 먹고 싶다면 피자헛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인도 피자헛 메뉴는 우리 나라와 달랐는데 다른 독특한 향료가 들어간 듯했다. 피자를 먹고 나오는데 입구에 Had a good time ! Ring the bell ! 이라고 쓰여 있어 매달려 있는 종을 잡아 당겼다. 종소리가 울려 피자종업원들이 아주 좋아한다. 잘



알라뿌자(Aleppuzha)수로의 주택가 풍경



알라뿌자(Aleppuzha)수로의 평화로운 풍경

가리는 인사를 뒤로 하고 숙소를 향해 걸어나오는데 Ladies only 라고 쓰인 미장원이 보인다. 실면도를 하는 곳이라며 집사람과 나래가 하겠다고 한다. 나도 같이 들어가려는데 남성 출입금지라며 밖에서 기다리라 한다. 하는 수 없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기다려야 했다. 30분쯤 있으니 두 사람이 나온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미용사에게 얼굴을 맡기고 누워 있자니 긴장도 되었지만 재미있었고 실을 꼬아 면도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며 집사람이 첫경험을 이야기한다. 남성전용이 없는 것이 많이 아쉬웠다.

7시경 인도에서 나래와 친구처럼 지내는 언니, 오빠들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수라상'으로 올라갔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돼지갈비를 소주와 먹으니 한국에 돌아온 듯하고,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니 식탁이 임금님 수라상보다 더 곱고 훌륭하다. 다들 의젓하고 믿음직하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한 그날 밤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 1월 31일, 인도에서의 마지막 날

MG 로드로 와서 기념품과 필요한 물건 등을 골랐다. 공항까지 가는 택시를 8시 40분에 콜해 놓은 상태라서 저녁을 급하게 먹었다. 인도에서의 마지막 밤이었고 나래와 헤어지는 밤이다. 스테이크와 스파게티

로 식사를 하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 공항까지 배웅하겠다는 나래를 먼저 보내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담담히 돌아섰다. 지금의 이별이 훗날 더 아름다운 재회를 하기 위한 잠깐의 헤어짐이라고 믿으며 녀석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속으로 기원하며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 2월 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

한 달 남짓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인천 공항으로 돌아왔다. 큰 차남 내외가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와 있다. 헤어짐은 곧 만남이구나. 반갑다. 기쁘다. 이틀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은 아내의 민낯이 환해 보인다.

집으로 돌아오니 장모님께서 한 상 가득 차려놓으셨다. 3월이면 고3이 되는 작은아이는 여행 떠나는 날에, 모든 순간을 즐기고 오라는 편지를 주더니만, 돌아오는 날에는 엄마아빠의 귀국을 축하한다고 풍선을 벽에 붙여 놓고 케익까지 준비해 놓았다. 그 녀석의 마음 씀씀이에 나는 다시 한 번 팔뚝춤이 되었다.

### 끝나지 않은 말줄임표

수박 겉 핥기 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도라는 불가사의한 나라에 잠시 몸 담고 왔다는 그 사실이 내게 경이롭고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안겨 주었다. No problem을 외치며 유유자적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해할 수 없기도 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할 곳 중의 하나라는 인도에서 온 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 같은 스티를 맛보면서 내 삶의 무늬와 조각들이 더 늘어났다. 감사하다.

힘들의 연속이었음에도, 아내와 딸과 함께 했던 이 여정은, 내 생애 가장 자유롭고 멋진 여행으로 반추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고맙게 기억될 것이다.

이 여행기를 쓸 수 있다는 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린다. 다시 인도에 가고 싶다는….

자유롭게 훨훨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다는… 이젠 분명 병이다. 📖